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quinor goes for huge circular FPSO at challenging Barents Sea project

올 가을 Equinor사 Wisting 프로젝트의 60억~90억달러규모 FPSO 수주권을 앞두고 많은 조선사들이 준비하고 있음. 기본설계단계는 올해 시작될 것이며,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hull engineering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다고 보도됨. (Upstream)

LNG newbuilding prices close to \$200m mark as owners eye berths

철강 가격 인상, 달러약세 등 요인에 따라 LNG선 신조선가가 2억달러를 향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4년간 1.85억달러 수준을 횡보하다 금년 1억-1.5억달러 가량 상승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Private equity-backed Dong-A Tanker inks deal for up to six MRs

STX조선해양이 동아탱커로부터 210억달러 규모 MR탱커 2+4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1차선 납기는 내년말, 2차선은 2023년초로 보도됨. (Tradewinds)

Oil steadies after hitting 2-yr high as demand hopes face supply growth

유가가 2년래 최고치를 보인 이후 안정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보도됨.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금요일 국제 수요가 2022년말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며, Opec+에 생산증대를 촉구함. (Upstream)

현대오일뱅크, 내년 목표로 상장 추진

현대중공업지주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의 상장 재추진을 위한 지정감사인 신청이 14일 공시됨.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74.13%를 보유함. (조선일보)

조선 빅3, 친환경 핵심장비 국산화 추진...'수주경쟁력' 높인다

IMO 규제강화 기조에 따라 국내 주요 조선사인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축발전기모터 개발과 에너지절감장치의 적용확대에 노력 중이라고 보도됨. 대우조선은 5월부터 효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친환경 조선기자재 국산화에 노력 중이라고 보도됨. (데일리안)